

인구 늘고, 기업 호평... 장성군의 성장, '숫자'로도 보인다

1년 새 인구 1116명 증가... 2조 2000억 규모 데이터센터 조성 협약

장성군의 성장세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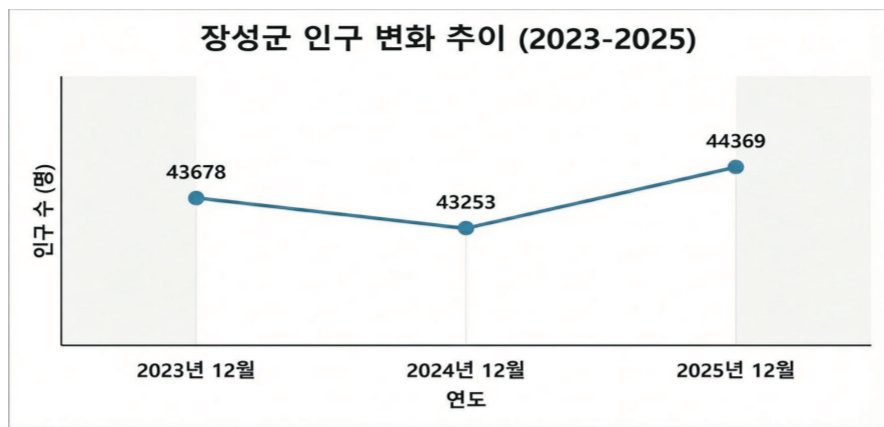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분야는 '인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장성지역 인구는 4만 4369명으로 1년 전보다 1116명 늘었다. 장성읍 소재 793세대 '대광로제비암' 아파트 입주 시작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장성의 인구 증가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대단위 인구 유입이 가능해진다. 3729세대 규모임을 감안할 때 최대 1만 명 가량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도 부각되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업 685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 환

경 체감도 조사'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꼽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장성군은 '창업'과 '입지' 부문에서 '톱 10'에 올랐다. 두 분야에 동시 선정된 지역은 전국에서 장성을 포함해 단 4곳에 불과하며 전남에서는 유일하다. 나노산업단지 조성 이후 규제 완화, 맞춤형 지원 등 꾸준히 노력해 온 성과다.

국가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장성군은 작년 말 전남 최초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가진 데 이어, 지난 1월 16일 전남도, 참여기업 등과 사업비 2조 2000억 원 규모 '에이아이(AI) 데이터센터'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황룡면 율평리 일원에 조성되며, 200MW 규모의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군은 'AI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의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이따른 호재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결과로 남았다. 군에 따르면 2026년 장성군의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0.92%로 전남 1위다. 전라남도 평균인 0.3%의 3배

가 넘는 수치다. 첨단3지구 개발과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시행되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기대 심리도 작용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나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감염병 관리 교육

전라남도 나주시가 감염병 발생 위험이 큰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 다.

나주시보건소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에서 발생 위험이 큰 감염병을 예방하고 노인일자리 활동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외 활동과 대면 활동이 많은 노인일자리 특성을 반영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형 예방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교육은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첫 교육은 나주시 민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 유형별로 순차 확대해 총 4710명의 어르신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호흡기 감염병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감염병별 위험성과 발생 특성,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 감염 의심 시 신속한 의료기관 이용 등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관리 방법을 비롯해 안전한 음식 섭취와 위생 관리 수칙,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과 진드기 노출 예방, 작업 후 위생 관리 등 노인일자리 활동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나주시이명열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일 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 진화 헬기를 신규 배치하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 기존 9대 운영하던 임차 헬기를 2026년부터 10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존 나주 계류장을 중심으로 나주·화순·영암 권역을 담당하던 운영체계를 화순·장흥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불진화헬기계류장을 화순군 한천자연휴양림에 설치해 보다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순군 산불진화헬기 본격 운영... 산불 예방 총력 대응

전라남도 임차 헬기 9대에서 10대 확대 운영에 따른 신규 배치·운영

이번 헬기 배치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은 물론, 불법소각 단속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 산림 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진화 헬기는 Bell-505 소형 기종으로 탑승량은 850㏊이며, 전체 면적의 7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화순군의 산악지형

에 적합한 기동성이 뛰어난 헬기다.

헬기 운영을 위해 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등 총 2명이 배치돼, 봄철(2월 1일~5월 15일)과 가을철(11월 1일~12월 15일) 산불조심 기간에 상시 대기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예정이다.

김두환 산림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연일 지속되면서 산불 위험성

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을 선발해 지난 1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대응단은 불법소각 단속, 주요 지역(등산로, 관광지 등) 계도·홍보활동 등을 통해 봄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김중환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폐기물 반입량 증가에 대비해 생활 폐기물 처리장 내 소각장 2곳과 자원재활용센터 1곳에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한 '이동식 소화설비'를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비 도입은 처리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과

고흥군, 생활폐기물 처리장 화재 예방 '빈틈없다'

이동식 소화설비 3대 설치, 현장 대응 중심 선제적 방재 체계 구축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동식 소화설비는 기존 고정식 소화전과 달리 화재 발생 지점까지 신속하게 이동해 직접 분사가 가능하며, 강력한 수압과 분사 거리로 소각장 내부 대형 폐기물

저장조 등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다.

고흥군은 설비 도입에 맞춰 운영사 관계자들과 실전 대응 훈련을 진행했으며, 주기적인 장비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화재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군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필수 시설인 만큼 안전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점검과 방재 장비 확충을 통해 화재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전남 함평군이 해충 박멸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함평군 보건소는 4일 "기후변화로 모기 등 위생 해충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드론 방역 추진에 앞서 사전 점검과 시험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드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친

함평군, 방역 사각지대 해소 드론 방역 사전 점검

화적 방역 약품이 현장 여건에 맞게 살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엑스포공원과 습지 등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드론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 기간 전까지 현장 여건에 맞춘 세밀

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성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책가 하수구 ▲개인 정화조 ▲유충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유충구제 약품을 활용한 방역 활동도 병행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위생 해충이 증가하면서 선제적 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완도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26건 안건 의결

해양치유·해양바이오 등 핵심 사업 추진 탄력, 민생 활력 제고

완도군은 지난 1월 30일 상황실에서 「2026 제1회 완도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하고 군 주요 자산 관리와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를 마쳤다.

이범우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심의회에는 민간 위원 3명, 공무원 위원 3명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취득 12건, 용도 폐지 10건, 사용료 감면 2건 등에 대한 심의 안건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될 250억 원 규모의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과 200억 원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안건이 통과됐다.

해양치유산업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08억 원 규모의 「지역 전략 산업 지원 주택 건립」 안건

이 가결됐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도 이어졌다.

군 대표 관광지인 신지 명사십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 매입과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할 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안건이 원안 통과돼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여 민생 활력 제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활용 가치가 상실된 군유지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병행됐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10건은 용도 폐지를 결정하여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향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하거나 새로운 공익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